

유입 전 정보인지가 한국생활만족과 정보발신태도에 미치는 영향*

- 부산·경남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Pre-Migration Information Cognition on the Satisfaction of Korean Life and the Attitude on Sending Information: Focused on Migrant Workers in Busan and Kyeongnam

김희재(Hee-Jae Kim)**, 장익진(Ik-Chin Chang)***, 나금실(Gum-Sil Na)****

【초 록】

이 연구는 한국 유입 전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에 관한 정보인지도가 한국생활만족과 정보발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함께 부산·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에 관한 정보는 인력송출회사와 매체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유입 전에 습득한 정보인지 중에서 '사회·경제정보인지' 요인이 높을수록 한국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생활만족에서는 '작업장환경만족' 요인이 높을수록 정보발신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제공과 정보경로의 다양화 등 정보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보인지도, 한국생활만족, 정보발신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satisfaction of Korea life and attitude on sending information is influenced by the information cognition rate of Korea before influx to Korea.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to survey migrant workers in Busan and Kyeongnam area. The results show a tendency towards a higher information cognition when the information was

acquired through manpower supply agencies and media information. In addition, among the variables of information cognition, when 'socio-economical' factor was high, the satisfaction rate of Korea life tended to be higher. Also, when the 'workplace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 was high, attitude on sending information tended to be positive. Based on tho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measures for establishing information policies, such as provision of high quality information, diversification of information route which are necessary for migrant workers.

【Keywords】

Migrant worker, Information Cognition, Satisfaction of Korea Life, Attitude on Sending Informatio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이주 노동자는 현재 그 수가 5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한국의 발전상이 알려지면서 중국 조선족의 한국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1992

* 이 연구는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부)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411-J01101).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khjhh@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icchang@pusan.ac.kr)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ngs3829@pusa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09년 2월 11일 논문심사일자 : 2009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자 : 2009년 3월 2일

년부터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과 해외에 투자한 국내기업들이 현지에서 고용된 인력들을 '해외투자산업연수생' 명목으로 국내 고용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1994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산업연수생이 유입되기 시작했다(석현호, 이해경 2003, 72). 2008년 현재 이주노동자는 미등록노동자를 포함하여 50만여 명에 이르며,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도 15개국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지만 한국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하고 있지는 않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2005, 2006), 국내 조사결과 입국 전(前) 모집과정에서 고용허가제 관련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응답자들은 친인척 소개나 인력송출회사를 통한 사적인 방식으로 고용허가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보는 주로 신문이나 노동부 사이트,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을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는 잘 모르고 입국하고 있다. 한국 취업을 위해 노동부, 모국 정부기관 등의 공적인 기관을 통한 경로보다 개인적으로 '소개인'을 통해 한국에 유입되고 있고, 또 그 방법이 더 확실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비록 신뢰가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274) 때문이다. 이러한 이주 과정에서 과도한 비공식 송출비용 발생과 공식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송출사기를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소수자로서 그들이 정보 빈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노동자들의 입국 경로와 한국에 대한 정보인지도 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정보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문제제기로는 이주노동

자는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입국하는가? 입국할 때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국에 대한 정보가 한국 적응에 도움이 되는가? 모국으로 한국정보를 발신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하는 것이다.

1.2 연구범위

본 연구는 부산·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적 관점에서 한국정보습득과정과 정보인지도, 한국생활만족도, 정보발신태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보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연구범위로 한다. 행정안전부의 조사(2008)에 의하면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으로, 65.9%가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이 여전하지만 부산·경남으로의 이주노동도 증가하고 있다.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와 그 국적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부산·경남 이주노동자 수는 2008년 7월 현재 전체 36,764명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8.4%에 해당한다. 부산은 10,613명(부산시 인구 대비 0.3%), 주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기장군 등의 공단지역을 중심(녹산·신평·장림·사상)으로 모여 있다. 경남은 26,151명(경남 인구 대비 0.8%)으로 김해시, 창원시,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마산시, 함안군 등에 밀집되어 있다. 국적은 중국인(조선족 포함)이 32.8%, 베트남인 19.1%, 필리핀인 9.9%, 인도네시아인 9.5%, 태국인 6.2%, 몽골인 3.0%, 기타 국적이 19.5%이다(행정안전부 2008). 이주노동자들의 거주지가 주로 회사 기숙사나 공장 내에 위치한다고 볼 때 이들의 일상은 거주지와 작업장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산·경남의 사업장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5개 국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5개 국 언어로 번역하여 각 국 적별로 50부씩 총 250부를 배포하였다.

<표 1> 부산·경남 이주노동자 국적별 현황

명	중국	중국 (조선족)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니	기타 ¹⁾	
전국	437,727	31,720	222,547	14,391	40,620	30,979	23,813	20,103	53,554
부산	10,613	1,324	2,704	312	1,697	947	768	1,009	1,852
경상	26,151	3,425	4,606	798	5,330	2,703	1,513	2,475	5,301
합계	36,764	4,749	7,310	1,110	7,027	3,650	2,281	3,484	7,153

자료: 2008년 외국인주민실태조사, 행정안전부, 2008. 7. 31일 기준.

주 1) 기타는 남부아시아(네팔 등),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등), 미국, 대만, 일본 등이 포함됨.

1.3 기존 연구의 검토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의 인권과 노동조건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관심도 증가하였다(최협 외 2005, 석현호 외 2003,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05).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실태조사는 많은 정책들을 양산했다. 심보선(2007)은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 정책 형성과 변화의 인과적 기제를 밝히며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합리적 계약이나 정치적 인정의 평등적 관계 대신에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온정주의적(paternalist)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주과정과 적응, 정착과정 연구(석현호 2000, 이태정 2004, 권태환, 박광성 2005)와 세계체제 속에서 시장-사회-국가 및 개인의 상호작용 모형을 발전시키며 비교역사적 방법을 통하여 연구 지평이 확대되었다(설동훈 2001).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의 적응에 있어 이주노동이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며, 이주노동자들이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사회가 규정하는 객체, 하나의 타자로 수렴된다(한건수 2005). 반면에 김수재(2008)는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국사회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존재가 아닌 자기 가족과 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력 활용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이주노동의 연구를 심화시켰다(강수돌 2003, 한진희, 최용석 2006). 케빈 그레이(2004)는 계급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 문제를 단지 정책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저층 계급’으로서 이주노동자의 확대를 보다 폭넓게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이주기구는 현지조사를 통해 송출국의 정책과 역할을 조사하였다. 이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지 송출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IOM Seoul 2005, 2006).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취업하였다가 정착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으나(Castles Stephen 2000) 일부는 한국 사회에 잔류하여 정착하기도 한다.²⁾ 이주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가능한 선택지들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찾기도 용이한 곳을 향한다(피터 스타커, 이보영 역 2004). 이때 노동이주를 가게 될 유입국에 관한 정보는 이주노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노동이주를

위한 정보 수집은 사적인 연결망을 이용하거나 모국 정부기관 또는 TV·신문·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정부에서 관련 정보를 송출국에 제공하고 있지만, 선발방법이나 한국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취업조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입국 후 문제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주인권연대 2005, 2006). 이러한 정보빈곤은 한국에 적응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불확실한 정보나 소문에 의존하여 ‘생존’을 위한 의사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태가 보편화”된다는 것이다(이제환, 윤유라 2005). 한편으로 결혼이민자들이 구직활동 및 취업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의 연결망 밀도가 가장 높은 정보체계는 ‘모국인 친구’(이용재, 배화숙 2008, 493)으로 사적 연결망에 의한 정보행태가 주요 정보유통 경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정보행태도 중요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행 노동이주를 결정할 때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의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은 한국사회 적응에 중요한 역할(정기선 2003)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유입경로와 정보인지가 한국행 노동이주에 대한 만족과 한국에서 경험한 한국정보를 모국을 발송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전제는 ‘외국인력단기순환정책’이다. 이때 한국에 관한 정보도 이주노동자들의 입국과 귀환, 재입국 등으로 순환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기 전에 알게 된 정보, 한국에서 경험한 정보, 모국으로 발송하는 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복지정책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2.1 측정 변인과 기설 설정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에 입국하기 전의 정보인지가 입국 후 한국생활만족과 정보발신타도를 파악하기 위한

2) 본 조사에서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 40.6%,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가 40.2%, 기타 19.8%로 나타났다.

측정 변인들은 입국 전(前) 정보습득경로, 한국정보인지도, 취업정보인지도, 한국생활만족도, 정보발신태도, 그 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다.

정보습득경로는 한국정보와 취업정보를 누구를 통해 얻었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한국정보와 취업정보를 신문·TV·라디오 등을 통해 습득한 경우는 '매체정보'로, 가족·친지·친구·이웃 등을 통해 습득한 경우는 '대인정보'로, 인력송출회사를 통해 안 경우는 '인력정보'로, 모국 또는 한국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경우는 '공적정보'로 정의하였다.

한국정보인지도는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입국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16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범주로는 '한국의 지구상 위치',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수준', '한국사람·한국상품', '남북분단', '한국전쟁', '일본에 의한 지배', '월드컵·올림픽 개최', '높은 경제성장', '높은 정보기술', '정된 치안', '높은 교육열', '민중화 투쟁', '한국어', '한국의 영화·드라마', '부산·경남의 위치', '부산은 항구도시'로 설정하여 1점 '매우 잘 알았음' 1점에서부터 5점 '전혀 몰랐음'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취업정보인지도에서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취업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범주로는 '임금수준', '노동시간', '작업량', '작업장 환경', '안전시설', '작업장규칙', '숙소제공', '급식제공', '송금방법', '의료혜택', '고용기간', '복지시설',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법', '회사 규모', '회사 위치', '회사 생산품목'으로 17개 항목을 설정하여 1점 '매우 잘 알았음'에서부터 5점 '전혀 몰랐음'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국생활만족도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한국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위주로 생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장과 관련된 만족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척도도 작업장 위주의 만족도를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고용된 회사', '고용기간', '근로시간',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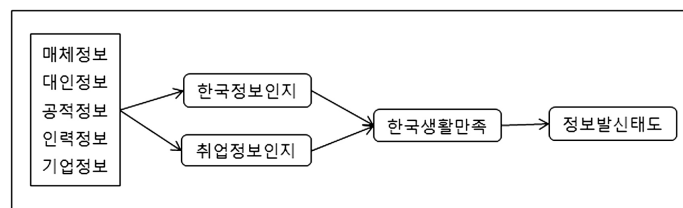
수준', '작업장환경', '안전시설', '의료혜택', '숙소시설', '회사급식',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생활관습', '교육환경', '쇼핑시설', '문화시설'의 15개 항목을 설정하여 1점 '매우 만족함'에서부터 5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보발신태도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정보를 모국으로 발신탈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일자리 정보', '임금정보', '이주노동자의 성공적인 취업 사례정보', '생활관습 정보',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입국정보', '정치·정치·사회·문화 정보', '상사·동료와의 관계', '작업장정보'의 9개 항목으로 1점 '매우 긍정적'에서부터 7점 '매우 부정적'까지 7점 척도로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변인들을 이용한 가설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따른 첫 번째 가설은 '한국정보습득경로에 따라 한국·취업정보인지도가 다를 것'이다. 두 번째는 '정보인지도가 높을수록 한국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정보인지도와 한국생활만족도를 분석하여 정보인지도가 높은 응답자와 정보인지도가 낮은 응답자간에 한국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한국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보발신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보발신태도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2 자료의 수집과 분석

질문지는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5개 국 이주노동자들에게 각각 50부씩 250부가 배포되었으며, 조사는 2008년 7월 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인도네시아인 51부, 필리핀인 40부, 베트남인 51부, 중국인 46부, 태국인 51부로 총 239부(95.6%)를 회수하였다. 질문 항목의 응답이 다수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유효 처리한 응답지는 232부(92.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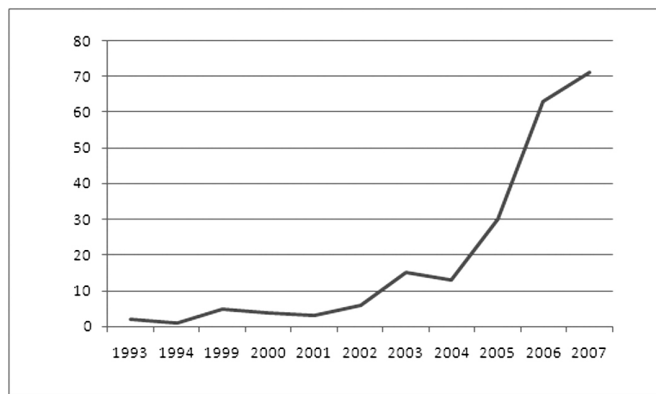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분석의 모형

회수된 자료는 분류, 코딩, 재코딩,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Version 14.0)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분산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응답자들의 입국연도는 1993년부터 부산·경남으로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이주노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의 입국년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2 참

조) 90년대 초반부터 2002년까지 소폭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도에 하락하고 있다. 이는 당시 불법체류 합법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진출국기간과 기간 이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는데(법무부 보도자료 2003. 11. 12), 그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그림 2. 조사응답자의 한국 입국년도 추이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비율)

	전체	인니	필리핀	베트남	중국	태국
성별						
여성	11.9	2.0	25.6	12.2	10.9	11.8
남성	88.1	98.0	74.4	87.8	88.1	88.2
나이						
25세 미만	25.0	18.8	5.3	61.2	13.3	20.8
26-30세	27.6	33.3	10.5	26.5	40.0	25.0
31-35세	25.4	33.3	42.1	6.1	20	29.2
36-40세	16.2	10.4	31.6	6.1	17.8	18.8
41세 이상	5.7	4.2	10.5	0.0	8.9	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25.3	6.0	2.8	6.1	60.9	47.9
고졸	57.6	84	30.6	85.7	34.8	43.8
대학졸 이상	17.0	10.0	66.7	8.2	4.3	8.3
결혼여부						
미혼	45.7	42.9	23.1	67.3	42.2	48.0
기혼	54.3	57.1	76.9	32.7	57.8	52.0
종교						
가톨릭	27.0	4.0	97.4	38.3	5.7	0.0
불교	33.3	0.0	0.0	42.6	8.6	100.0
이슬람	21.2	94.0	0.0	0.0	0.0	0.0
기타	18.5	2.0	2.6	0.9	8.7	0.0
작업장						

김해·녹산	28.8	20.9	18.9	33.3	9.8	55.3
부산	26.5	46.5	54.1	19.6	7.3	10.6
진해·창원	39.7	20.9	21.6	41.2	80.5	34.0
울산	5.0	11.6	5.4	5.9	2.4	0.0
체류기간						
1년 이하	34.0	36.0	22.5	36.7	56.5	18.0
2년	24.3	28.0	22.5	22.4	19.6	28.0
3년	6.8	6.0	12.5	26.5	10.9	6.0
4년	6.8	2.0	5.0	14.3	6.5	6.0
5년	3.8	8.0	7.5	0.0	2.2	2.0
6년 이상	12.3	20.0	30.0	0.0	4.3	10.0
체류자격						
등록	82.7	85.7	82.4	85.7	68.2	90.0
미등록	17.3	14.3	17.6	14.3	31.8	10.0

본 조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11.9%가 여성이며, 남성이 88.1%를 차지한다. 국적에 따른 성별 비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의 비율이 낮은 집단은 인도네시아인이며, 여성비율이 높은 집단은 필리핀인이다.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여성이주노동자는 5,244명으로 그 중에서 중국조선족 여성 이주노동자가 2,601명(50%)이다(행정안전부 2008). 그러나 본 조사에서 국적을 묻는 질문에 조선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없었다.³⁾

평균 나이는 30.7세이며 30세 미만이 52.6%로 절반 이상의 젊은 노동자층이 가장 많다. 특히 베트남인의 경우 25세 미만이 61.2% 차지한다. 가장 나이가 많은 집단은 필리핀인이다. 필리핀인은 41세 이상이 1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한국행 노동이주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74.6%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17%로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인과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90% 이상이다. 반면에 태국인과 중국인은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결혼은 기혼이 54.3%, 미혼이 45.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혼자는 필리핀인이 가장 높으며, 미혼자는 베트남인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자들의 경우 가족은 모국에 두고 단신으로 한국에 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교는 불교가 33.3%로 가장 많다. 태국인(100%), 베트남인(42.6%), 중국인(8.6%)이 불교라고 응답하였다. 가톨릭은 필리핀인이 대부분이며, 인도네시아인은 이슬람이 대부분이다. 기타 종교가 없거나 그 외 종교도 18.5%로 나타났다. 종교는 한국생활에서 중요한 기제로 작동

하는데, 이는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종교를 중심으로 모국인들과의 연결망을 지속시키기도 한다.

작업장은 주로 진해·창원, 김해·녹산,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평균 2년 4개월로 나타났으며, 1년 이하가 34.0%로 가장 많았고, 2년이 24.3%로 나타났다. 3~5년은 낮게 나타났으나 6년 이상에서는 12.3%로 높게 나타났다. 필리핀인의 경우 6년 이상 거주자가 30%를 넘고, 인도네시아인도 20%를 넘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일찍 부산·경남으로 이주한 반면, 그외 집단은 대부분 고용허가제 이후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체류자격은 대부분 등록노동자(82.7%)로 국적별 차이가 있었는데, 등록노동자 비율이 높은 집단은 태국인(90%)이며, 미등록노동자의 비율은 중국이 높게 나타났다(31.8%).

3. 정보 인지도와 한국생활 만족도

한국입국 경로를 살펴보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제3국을 거치는 경우보다 송출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92.9%). 이는 등록노동자가 대부분으로 고용허가제 또는 산업연수생 취업경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입국 경로와 달리 부산·경남 유입은 송출국에서 바로 부산·경남으로 유입이 36.4%, 서울과 경기를 거친 유입은 51.3%로 다수가 서울과 경기를 거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의 유입 전후의 직업을 살펴보면 <표 3>

3) 일반 고용허가제로 온 노동자의 성별 계약체결현황을 살펴보면 총 도입인원 88,720명 중 78,535명(88.5%)가 남성이고, 10,185명(11.5%)가 여성으로 11.5%를 차지하였다(국가인권위 2007).

과 같다.

〈표 3〉 유입 전·후 종사업종

	입국 전	입국 후
농축산업	16.7	0.8
어업	2.5	1.3
제조업	36.4	71.1
건설업	6.7	4.6
서비스업	5.9	0.4
도매 및 소매업	6.7	2.5
숙박 및 음식점업	2.9	1.7
운수업	4.2	2.5
기타	18	15.1
합 계	100.0	100.0

조사대상자들의 모국에서의 종사업종은 주로 제조업(36.4%), 농축산업(16.7%),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6.7%), 서비스업(5.9%), 운수업(4.2%), 숙박 및 음식점업(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에서의 종사업종은 대부분 제조업(71.1%)과 건설업(4.6%)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정보습득경로와 정보인지도

다음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유입되기 전에,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가를 질문하였다. 정보습득경로인 '매체정보', '대인정보', '공적정보', '인력정보', '기업정보', '기타 정보'에 따라 정보인지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보인지도는 한국정보인지와 취업정보인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표 4〉에서 한국정보인지가 가장 높은 정보습득경로는 '인력정보'로 나타났다. 즉 한국정보를 인력송출

회사를 통해 습득한 경우가 다른 정보원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력정보'는 전체 다른 정보의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정보'에 비해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공적인 경로를 통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입국지연 등으로 인해 공적정보보다 인력송출회사의 정보를 통해 입국하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이다. 인력정보 다음으로 매체정보에 의해서도 한국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업정보를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를 통해 습득한 경우, 다른 정보원에 의한 경우보다 취업정보인지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기업정보'에 의한 인지가 다른 정보습득경로보다 높은 것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통해 직접 접촉함으로써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정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9명으로 일반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기업정보 다음으로는 '매체정보'가 취업정보를 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출국에서의 고용허가제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로 신문이나 노동부 사이트,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6) 특이한 점은 주로 대인정보 또는 소개인을 통해서 정보를 주로 접할 것으로 보았으나, 본 조사에서는 '대인정보'에 의한 평균치가 다른 정보습득경로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적인 연결망을 통해서도 취업정보를 얻지만, 주로 '공적정보'(공공기관)와 '매체정보'(신문·TV·라디오 광고 등)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정보인지도와 한국생활만족도

앞서 한국정보습득경로에 따르면 '인력정보' 경로에

〈표 4〉 정보습득경로와 정보인지도

	한국정보인지			취업정보인지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매체정보	98	3.32	.63	32	3.32	.80
대인정보	60	3.22	.65	70	3.05	.79
공적정보	23	3.21	.75	57	3.28	.62
인력정보	36	3.35	.77	55	3.23	.60
기업정보	7	2.61	.84	9	3.46	.99
기타정보	7	3.06	1.07	5	3.40	.68
전 체	231	3.22		228	3.21	

주) 각각 5점 척도의 평균치임. 각 항목에 대해 역점수로 처리하여 '전혀 몰랐다' 1점 ~ '잘 알았다' 5점을 부여함.

따른 한국정보인지도의 평균은 높게 나타났고, ‘기업정보’에 따른 한국정보인지도의 평균은 낮게 나타났다. 즉 인력송출회사를 통한 한국정보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이며, 기업에 의한 한국 정보는 유용한 정보원이 아님을 의미한다. 반면에 취업정보습득경로에서는 ‘기업정보’에 따른 취업인지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대인정보’는 취업인지도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정보인지와 취업정보인지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한국정보인지도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41세 이상이 한국정보인지도가 높으며, 다음으로는 24세 미만, 31~35세에서 높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인이 한국정보인지도가 가장 높고, 필리핀인, 태국인, 인도네

시아인,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인과 중국인은 한국정보인지도가 평균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가장 높고, 대학졸업, 고등학교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정보인지도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취업정보인지도는 24세 미만에서 가장 높고, 36세 이상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인과 필리핀인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중국인과 태국인에게서 낮게 나타났다. 베트남인은 고용허가제 이후 한국행 노동이주가 증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필리핀인들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한국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모국 공동체로부터 한국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필리핀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

<표 5> 정보인지도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정보인지 ¹⁾			취업정보인지 ²⁾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나 이	24세 미만	37	3.35	.67	38	3.33	.62
	25~30세	78	3.20	.61	79	3.17	.62
	31~35세	57	3.27	.85	57	3.14	.87
	36~40세	36	3.08	.84	37	3.20	.78
	41세 이상	10	3.50	.72	11	3.21	1.11
	합 계	218	3.24	.73	222	3.20	.74
국 적	인도네시아	50	3.03	.59	50	3.12	.81
	필리핀	39	3.36	.71	39	3.43	.84
	베트남	48	3.59	.52	48	3.46	.52
	중 국	41	2.68	.75	44	3.00	.64
	태 국	51	3.42	.79	51	3.07	.81
	합 계	229	3.23	.74	232	3.21	.75
결혼여부	미 혼	103	3.37	.66	105	3.25	0.63
	기 혼	115	3.12	.80	118	3.16	.84
	기 타	4	3.02	1.00	4	3.32	1.18
	합 계	222	3.23	.75	227	3.20	.75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9	3.55	.46	9	2.89	.93
	중학교 졸업	47	2.91	.92	47	3.01	.70
	고등학교 졸업	125	3.30	.65	129	3.31	.66
	대학교 졸업	39	3.45	.79	39	3.14	1.00
	합 계	220	3.23	.75	224	3.21	.75

주 1) 한국정보인지도는 16개의 항목의 합산하여 평균치로 계산하였음.

2) 취업정보인지도는 17개의 항목을 합산하여 평균치로 계산하였음.

저 공식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였다(이정환 2003, 364)⁴⁾ 반면에 중국인은 1992년부터 산업연수생자격으로 시작하였고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도 2007년 4월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화교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이정환 2003, 371)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인지도와 마찬가지로 기혼보다는 미혼이 취업정보인지도가 높으며, 교육수준은 한국정보인지도와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한국정보인지와 취업정보인지가 한국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정보인지도와 취업정보인지를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한국정보인지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항목은 '높은 경제성장'이다. 다음으로 '월드컵·올림픽 개최', '남북분단', '안정된 치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항목은 '일본에 의한 지배', '민주화 투쟁', '한국전쟁', '한국어' 순으로 나타났다. <표 6>의 요인추출은 한국정보인지도 항목에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으로 추출되고 배리맥스(Varimax)방법에 의해 회전한 후 추출된 요인 값을 제시하였다. 각 항목은 세 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표 6>에서 요인 1은 k1~k8을 묶어 '사회·경제정보인지'로, 요인 2는 k9~k12를 묶어 '역사정보인지'로 요인3은 k13~k16을 묶어 '지역·문화정보인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은 취업정보인지를 측정된 17개의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요인을 <표 7>과 같이 추출하였다.

취업정보인지도의 전체 평균은 3.21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취업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인지가 가장 높은 항목은 '노동시간'이며, '고용기간', '임금수준', '급식제공', '숙소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인지가 가장 낮은 항목은 '복지시설', '회사규모', '작업장환경', '작업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항목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 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요인1은 w1~w7을 묶어 '작업장 정보인지'로, 요인2는 w8~w14를 묶어 '고용조건정보인지'로, 요인3은 w15~w17을 묶어 '기업정보인지'로 명명하였다.

<표 6> 한국정보인지 요인추출

	전체 ¹⁾	요인적재 값	요인추출 명
한국위치	k1	3.40	사회·경제정보인지
한국 정치/경제/사회수준	k2	3.17	
한국사람, 한국상품	k3	3.40	
높은 경제성장	k4	3.62	
높은 정보기술	k5	3.45	
안정된 치안	k6	3.46	
높은 교육열	k7	3.25	
민주화 투쟁	k8	2.82	
남북분단	k9	3.53	역사정보인지
한국전쟁	k10	2.86	
일본에 의한 지배	k11	2.71	
월드컵, 올림픽 개최	k12	3.57	
한국어	k13	3.02	지역·문화정보인지
한국의 영화/드라마	k14	3.31	
부산, 경남의 위치	k15	3.14	
부산은 항구도시	k16	3.39	
평균		3.26	

주) 5점 척도의 평균치임. 각 항목에 대해 역점수로 처리하여 '전혀 몰랐음' 1점~'매우 잘 알았음' 5점을 부여함.

4) 공식적인 노동자조직체인 '필리핀인공동체(Filipino Community)'를 1992년 9월 서울 '자양동성당'의 한 수녀원 사무실을 빌어 설립했다. 하지만 이 단체가 나중에 소수민족집단지주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 한국정부는 해체압력을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인공동체는 설립한 지 1달 만에 해체되고 대신 필리핀국화인 삼빠기따(Smpaguita)라는 용어를 첨가하여 '삼빠기따필리핀공동체(Sampaguita Philippines Community)'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조직 되었다(이정환,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와 관련 NGO", 석현호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364.

〈표 7〉 취업정보인지 요인추출

		전체 ¹⁾	요인적재 값 ²⁾	요인추출 명
노동시간	w1	3.57	.531	작업장정보인지
작업량	w2	2.98	.734	
작업장 환경	w3	2.96	.748	
안전시설	w4	3.17	.771	
작업장 규칙	w5	3.16	.670	
숙소제공	w6	3.28	.565	
급식제공	w7	3.29	.603	
임금수준	w8	3.39	.667	고용조건정보인지
송금방법	w9	3.28	.576	
의료혜택	w10	3.19	.576	
고용기간	w11	3.53	.768	
복지시설	w12	2.86	.553	
근로계약서작성	w13	3.25	.669	
노동법	w14	3.20	.685	
회사규모	w15	2.91	.777	기업정보인지
회사위치	w16	3.12	.735	
회사 생산품목	w17	3.03	.816	
평균		3.21		

주 1) 5점 척도의 평균치인, 각 항목에 대해 역접수로 처리하여 '전혀 몰랐음' 1점 ~ '매우 잘 알았음' 5점을 부여함.

2) 주성분 분석에 의해서 추출되고 배리맥스방법에 의해 회전한 후 추출된 요인 값을 제시함.

이러한 요인들을 추출하여 한국정보인지 요인과 취업 정보인지 요인이 한국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을 보면 한국정보인지의 세 개 독립변수 중에서 '사회·경제정보인지'가 한국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반면에 '역사정보인지'와 '지역·문화정보인지'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으나, 회귀계수의 방향은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정보인지'와 '지역·문화정보인지'가 낮을수록 한국생활만족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한국에 관한 역사 또는 지역·문화에 관한 양질의 정보 제공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정보인지도가 한 개의 요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취업정보인지도 요인은 '작업장정보인지'와 '기업정보인지' 두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p < .10$). 즉, '작업장정보인지'와 '기업정보인지'가 높을수록 한국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한국생활만족도와 정보발신태도

4.1 정보발신태도

앞서 '사회·경제정보인지'와 '작업장정보인지', '기업정보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국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한국생활만족도가 정보발신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적별 정보발신태도의 각 항목별 평균 차이를 보면 〈표 9〉와 같다.

정보발신태도에서 모국으로 발신하는 긍정적인 정보는 '일자리 정보'와 '임금정보'이다. 이는 이주노동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보와 임금정보는 중요하며, 그 정보가 긍정적으로 발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국과 비교해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정보가 부정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작업장정보', '정치·사회·문화 정보'이다. '작업장정보'가 부정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한국에 일자리가 많으며, 또 모국보다 높은 임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실제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사회·문화 정보'의 발신태도가 부정적

〈표 8〉 정보인지 요인과 한국생활만족도

한국생활만족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48.698	.579		84.146	
한국정보인지도					
사회·경제정보인지	2.869	.365	.330	4.521	.000***
역사정보인지	-.234	.686	-.026	-.341	.734
지역·문화정보인지	-.700	.589	-.083	-1.189	.236
취업정보인지도					
고용조건정보인지	.919	.624	.110	1.473	.142
작업장정보인지	1.363	.611	.162	2.230	.027**
기업정보인지	1.065	.630	.123	1.690	.093*

R² = .211, F=7.488, *** p < .01, ** p < .05, * p < .10.

〈표 9〉 한국정보를 모국으로 발신할 때 태도

	전 체	인 니	필리핀	베트남	중 국	태 국
일자리 정보	4.8	5.6	5.1	4.9	4.1	4.1
임금정보	4.8	5.5	5.4	4.7	4.3	4.3
입국정보	4.7	5.6	5.5	4.7	3.7	3.9
이주노동자의 성공적인 취업사례 정보	4.6	5.6	5.4	4.2	4.0	3.9
상사, 동료와의 관계(말, 행동)	4.6	5.3	5.3	4.7	4.1	3.7
생활 관습 정보	4.6	5.1	5.6	4.7	3.9	3.9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4.5	5.4	5.4	4.3	4.2	3.4
정치·사회·문화 정보	4.4	5.1	5.0	4.6	3.9	3.4
작업장 정보	4.4	5.1	5.3	4.0	4	3.6
합 계	4.62	5.34	5.37	4.57	4.09	3.85

주 1) 7점 척도의 평균치인. 각 항목에 대해 역점수로 처리하여 '매우 부정적' 1점 ~ '매우 긍정적' 7점을 부여함.

2) 각 항목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p < .01).

인 것은 실제로 경험한 결과이기 보다 잘 알지 못하는 정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한 회사 내의 기숙사 또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작업이 늦게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정치 또는 사회에 대해 알 기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⁵⁾ 국적별로 살펴보면 모국으로 가장 긍정적인 정보를 발신하는 집단은 필리핀인으로 '생활관습' 정보와 '입국정보'가 가장 긍정적인 발신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인으로 '일자리 정보', '입국정보', '이주노동자의 성공적인 취업사례 정보'가, 베트남인은 '일자리 정보'가, 중국인과 태국인은 '임금정보'가 긍정적인 발신으로 나타났다.

4.2 한국생활만족도와 정보발신태도

앞서 정보발신태도는 평균이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68명(70.3%)이 넘는다. 또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97명(40.4%)이 '정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유입 후 한국생활만족은 '쇼핑 시설'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고, '문화시설', '동료와의 관계', '생활관습', '고용기간', '의료혜택' 등의 순서로 나타

5) 본 조사에서 하루 평균(시간외 근로 포함) 11.0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한국생활만족 요인추출

		전 체 ¹⁾	요인적재 값 ²⁾	요인추출 명
고용된 회사	s1	3.37	.666	고용조건만족
고용기간	s2	3.34	.679	
근로시간	s3	3.27	.824	
임금수준	s4	3.20	.743	
작업장환경	s5	3.06	.567	작업장환경만족
안전환경	s6	3.16	.459	
의료혜택	s7	3.29	.645	
숙소시설	s8	3.24	.727	
회사급식	s9	3.09	.733	
동료와의 관계	s10	3.40	.782	
상사와의 관계	s11	3.28	.647	지역환경만족
생활관습	s12	3.35	.575	
교육환경	s13	3.25	.787	
쇼핑시설	s14	3.55	.875	
문화시설	s15	3.47	.815	
합 계		3.30		

주 1) 5점 척도의 평균치임. 각 항목에 대해 역점수로 처리하여 '전혀 몰랐음' 1점 ~ '매우 잘 알았음' 5점을 부여함.

2) 주성분 분석에 의해서 추출되고 베리맥스방법에 의해 회전한 후 추출된 요인 값을 제시함.

났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작업장 환경', '회사 급식', '안전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이주노동자들의 모국보다 발전된 한국의 지역적 환경에는 만족하지만 자신들이 일하는 작업장 중심의 환경에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만족도를 조사한 17개의 설문지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세 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표 10〉의 요인적재 값에 따라 요인 1은 s1~s4를 묶어 '고용조건만족' 요인으로, 요인 2는 s5~s11을 묶어 '작업장환경만족'으로, 요인3은 s12~s15를 묶어 '지역환경만족'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생활만족의 '고용조건만족', '작업장환경만족', '지역환경만족' 요인이 정보발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정보발신태도에 영향을 미친 한국생활만족의 요인은 '작업장환경만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01), 그 외 다른 요인들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한국생활만족의 각각 요인들이 정보발신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작업장환경만족' 요인만이 정보발신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장환경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발신태도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이주노동자의 정보인 지도가 한국생활만족도와 정보발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이주노동자가 한국

〈표 11〉 한국생활만족과 정보발신태도

정보발신태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41.106	1.050		39.161	
고용조건만족	1.644	1.020	.124	1.611	.109
작업장환경만족	3.196	1.038	.238	3.079	.002**
지역환경만족	1.443	1.018	.110	1.418	.158

R² = .082, F = 4.597, ** p < .05.

으로 입국한 이후를 분석하고 있는 반면, 이 연구는 입국 전의 정보인지를 조사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습득경로에서 '인력정보', '매체정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이주노동자가 다른 정보습득경로를 통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정보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취업정보인지도는 매체정보와 기업정보를 통해 취업정보를 습득한 경우가 다른 정보습득경로보다 취업정보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응답자들이 대부분 고용허가제 이후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정보'가 유용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둘째, 한국정보인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국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요인별 결과를 보면, 한국정보인지도 요인 중에서 '사회·경제정보인지'가 높을수록 한국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역사정보인지', '지역·문화정보인지'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귀계수의 방향은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사정보인지'와 '지역·문화정보인지'가 낮을수록 한국생활만족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정보인지와 한국생활만족도 간의 분석에서는 취업정보인지 요인 중에서 '작업장정보인지'와 '기업정보인지'가 높을수록 한국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조건정보인지'는 한국생활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한국생활만족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일하는 작업장에 관련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보발신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만족도 요인 중에서 '작업장환경만족'이 정보발신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장환경만족이 높을수록 정보발신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과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안정된 적응을 위하여 유입 전 정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이 유입 전에 한국정보와 취업정보를 주로 '인력정보'와 '매체정보'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과 비공식적인 체계에 의존하기보다 '공적정보'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정보인지 요인 중 '사회·경제정보인지'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사회·경제적

인 정보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에 '역사정보인지' 또는 '지역·문화정보인지'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에 관한 역사 또는 지역·문화에 관한 양질의 정보 제공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으로 한국정보를 발신할 때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작업장환경만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주동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이유에서이다. 즉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기 때문에 고용기간 또는 임금에 관한 정보인지가 높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만족이 정보발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 경험에서 나온 '작업장환경만족'이 정보발신태도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작업장의 정보를 어떻게 발신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유입하기 전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정보정책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 입국 전(前)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정보가 한국생활에 얼마나 유용한지도 측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조사지역이 부산·경남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이주노동자들의 모집단 추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보다 지역적 경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점들은 후속적인 심층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수돌, 2003.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석현호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 국가인권위, 2007.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 조사』.
- 권태환, 박광성, 2005. 국내 조선족의 사회적응과 정책 - 조선족 노동자 집단의 형성, 최협 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 김수재, 2008.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 갈등과 대응 -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민족문

- 화논총』, 38: 153-182.
- 박경태. 2001. 노동력 송출국에서 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 필리핀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13(6): 26-48.
- 석현호. 2003. 외국인 노동자 연구의 배경과 설계. 석현호 · 정기선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 석현호, 이해경. 2003.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과 이주과정.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 석현호 외.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 설동훈. 2001.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 서울대출판부.
-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 『담론 201』, 10(2): 41-76.
-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05. 이주노동자 현황 및 개선 방안. 『복지행정학회』, 15(2): 221-260.
- 이용재, 배화숙. 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479-504.
- 이정환. 2003.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와 관련 NGO. 석현호 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형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73-295.
- 이제환, 윤유라. 2005. 외국인 노동자 H의 삶과 정보빈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81-202.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5.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 고용허가제 시행 1년, 그 실태와 개선방향.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_____. 2006.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이태정. 2004.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와 연대 - 안산시 “국경 없는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논문집』, 717-724.
- 정기선. 2003.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접촉, 사회적 거리감과 인상변화. 석현호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 최협 외. 2005.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 케빈 그레이(Kevin Gray), 2004.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 연구』, 47(2): 97-291.
- 피터 스타거, 이보영, 율김. 2004. 『국제 이주』. 서울: 이소출판사.
- 한건수. 2005. 타자 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최협 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 한진희, 최용석. 2006.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28(1): 1-22.
- 행정안전부.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 Castles, Stephen. 2000. *Ethnicity and Globa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IOM. 2005. A Survey on the Labour Emigration Management Systems of 12 Countries of Origin to the Republic of Korea - Indonesia, Mongolia,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Vietnam, Cambodia, China, Kyrgyzstan, Pakistan, Timor Leste, and Uzbekistan, IOM Seoul.
- _____. 2006. A Survey on the Labour Emigration Systems of 6 Countries of Origin to the Republic of Korea: Bangladesh, Iran, Kazakhstan, Myanmar, Nepal and Ukraine, IOM Seoul.